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10. 07.(수)

누리호 5차, 발사 시각 확정

- 10월 7일(수) 12시 25분 발사 진행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은 10월 7일(수) 8시 00분에 누리호 5차 발사 시각 확정을 위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위원장: 청장)」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5기의 목표 궤도 진입을 목표로,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6년 10월 7일(수) 12시 25분에 누리호를 발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붙임. 발사시각 공표 언론브리핑 발표문 1부. 끝.

담당 부서	우주수송부문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	책임자	과 장	현성윤 (055-856-5130)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055-856-5133)

(’26.10.07. 08:45)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청장입니다.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시에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등의 발사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리호의 발사 여부, 최종 발사 시각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준비 사항>

먼저, 누리호 발사 기술적 준비 사항입니다.

누리호는 어제 오전 발사대로 이송되어 발사대에 기립하였고, 연료와 전기 공급을 위한 엄빌리칼 연결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엄빌리칼 분리를 위한 착화기 연결 및 비행에 불필요한 부품 제거 등의 추가 작업을 어젯밤 11시 30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5시부터 발사체와 발사대의 센서와 장비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사 준비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사안전 요소>

다음으로 기상 상황, 우주환경 상황,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 발사 안전 요소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기상 상황>

먼저 기상상황입니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주변의 기온과 강수, 기압 상태는 모두 발사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발사대 주변의 지상풍은 평균풍속이 초속 15m를 초과하거나,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21m를 초과할 경우 발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현재 평균풍속은 초속 2m, 순간 최대풍속은 5m로 발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상풍이 약하더라도 상공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거나 고도에 따라 풍향과 풍속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층풍은 상승 중인 발사체에 강한 힘, 즉 공력 하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전에 반드시 점검합니다.

어제 오후 2시경, 풍선에 라디오존데라는 소형 기상관측장비를 매달아 약 20km 고도까지 띄우면서 고층풍의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누리호의 발사 가능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습니다.

또한 오늘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낙뢰와 관련한 발사 제한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기상 상황은 누리호 발사에 필요한 기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우주환경>

다음으로 태양 활동에 따른 우주환경 상황입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태양에서 강한 전자기파나 고에너지 입자가 방출되어 발사체의 전자장비에 영향을 주고, 통신이나 항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사 전에는 태양흑점 폭발, 태양입자 유입, 지자기 및 전리권 교란 등 우주환경 위험요소를 점검합니다.

우주환경센터의 금일 예보에 따르면 태양흑점 폭발과 태양입자 유입에 따른 정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지자기와 전리권 교란도 누리호 발사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마지막으로 국제우주정거장과 운용 중인 위성, 우주잔해물 등

추적 가능한 우주물체와 누리호의 비행경로 간 충돌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험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발사 시각 확정>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발사체 준비 상황과 발사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최종 발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의 발사가 가능한 시각은 12시 23분부터 13시 23분까지 1시간입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12시 25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준비 작업>

이 시간 이후 발사대에서는 연료와 산화제 충전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료인 케로신 충전은 오전 9시 40분경부터, 산화제인 액체 산소 충전은 오전 10시 15분경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충전에는 약 7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발사 10분 전인 낮 12시 15분, 누리호가 자동 운용 모드로 전환되면 이후 과정은 모두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누리호는 스스로 발사체 전체의 상태를 점검한 뒤, 엔진 점화와 이륙 등 후속 절차를 진행됩니다. 발사 10초 전 탑재컴퓨터는 이륙준비 상태가 되고, 발사 4초 전 1단 엔진이 점화된 후 정상출력에 도달하면 발사체 고정장치를 해제하여 발사가 이뤄집니다.

자동 운용 중에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발사 진행 절차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현재까지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발사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를 위해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